돋보기

헛수고가 될지라도

몇 년 전 주차장 방수공사를 했으나 2년 전부터 다시 제단 예배실에 비가 새기 때문에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자체적으로 주차장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방수업자에게 맡기면 바닥 표면 공사만 하는 데에도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 표면 공사만 해서도 비가 안 샌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방수층의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방수공사를 해보자는 제안에 의해서 주차장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균열이 가고 벗겨지고 들뜬 부분을 오려내고 에폭시와 콘크리트가 잘 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강화제를 바르고 에폭시을 발랐는데, 아뿔사! 강화제를 표면과 바닥에 듬뿍 발랐더니 표면이 녹아서 우글우글 전부 들떠버렸다. 차라리 손대지 말걸, '긁어 부스럼' 꼴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예배를 보러 오신 어떤 분이 "도대체 주차장에 무슨 짓을 했기에 이 모양이냐?"고 하더란다.

그래서 이틀째는 들뜬 부분을 전부 잘라내고 빈 공간에 강화제를 바른 후 조금 기다렸다가 에폭시를 부어서 채워 넣었다.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과 에폭시 막의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또 들뜨기 때문에 에폭시를 아예 기존의 높이보다 높게 넘치도록 부었다. 에폭시 막이 형성되면 방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사히 굳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바닥에는 크게 십(十)자 형태로 금이 가 있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에폭시를 계속 채워 넣었으나 나중에 보니 금이 간 부분으로 다 새어 들어가서 금간 곳이 그대로 표가 났다. 그 부분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에폭시가 마르면 미끄럽기 때문에 에폭시 표면에 규사를 뿌리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작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한다. 수막이 형성되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다. 만약 들떠버리면 이틀 작업이 허사(虛事)가 된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았느냐?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게 뭐냐?"고 나무라는 분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물이 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게 되었으니 다음에 업자에게 맡겨서 제대로 공사를 하겠노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다. 해서는 안 되는 헛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비가 안 샜다.

책임자는 사람 마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게 돼

일을 하다보면 헛일이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협조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분 표현대로 헛일이 될지라도 말이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일을 그르친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책임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자신이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책임자가 되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야 일이 된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 소위 헛수고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영적 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친 엄마다. 시간 시간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늘 이 영적엄마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몇 수가 되지 않는다. 어리디 어린 심령이라 엄마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이 엄마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이 엄마는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살려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내 자식인고로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이 죽을까봐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살려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엄마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서, 다 이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인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하나님이 된 여러분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요, 소망인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자구력은 마음의 근력이다!!!

평범함 속에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수련하는 만큼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스트레칭 유의사항

1.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합니다. (부상방지)
2.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연스런 호흡을 하면서 한 가지 자세를 20~30초 정도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합니다. (자신의 능력따라 조절가능)
4. 반동(바운스)을 주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신전(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작①: 한쪽 다리 올려 무릎, 종아리 늘리기.
동작②: 한쪽 무릎접어 골반 비틀기.
동작③: 한쪽 무릎 접어 골반 들어 올리기.
동작④: 한쪽 다리 바닥에 펴고 무릎 늘리기.*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59회

금 비둘기(81궁 정도령)의 감로해인은 생사(生死)를 판단하는 영물이니라

隱祕歌(八) 은비가

全全田田陰陽兩田之間
전전전전음양량전지간
弓弓雙弓左右背弓之間
궁궁쌍궁좌우배궁지간
乙乙四乙轉背四方之間
을을사을전배사방지간
單弓武弓 天上靈物 단궁무궁 천상영물
甘露如雨 心火發白 감로여우 심화발백
永生之物卽三豊之穀也
영생지물 즉삼풍지곡야
白石卽武弓 백석즉무궁
夜鬼發動 鬼不知 야귀발동 귀부지
項鎖足鎖下獄之物 항쇄족쇄하옥지물
一名曰海印 일명왈해인
善者生獲之物 선자생획지물
惡者死獄之物 악자사옥지물
卽三物也 즉삼물야
三物卽一物 삼물즉일물
生死特權之物也 생사특권지물야

전전(全全)은 전전(田田)인데 음전(陰田) 과 양전(陽田)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 전(田)이 나오며 그 완전 완성의 전(田)에서 십승(十勝)이 나오느니라.

궁궁(弓弓)은 쌍궁(雙弓)이요 궁(弓)자를 좌우로 등을 돌리게 하면(左右背弓之間좌우배궁지간) 백십승(白十勝)이 나오느니라.

을을(乙乙)을 가로 세로로 합해서 쓰면 십승이 나오고 사을(四乙)을 돌려가며 등을 지게 한 것에서도 십승이 나오느니라.

단궁(單弓)은 무궁(武弓)이다. 마귀를 죽여 이기는 궁(弓)이니 천상(天上)의 영물(靈物)인 감로가 비와 같이 내리느니라. 이는 마음을 밝게 하고 희고 깨끗하게 하여 영생을 주는 신령스러운 영물(靈物)로서 즉 삼풍(三豊=火雨露화우로) 곡식이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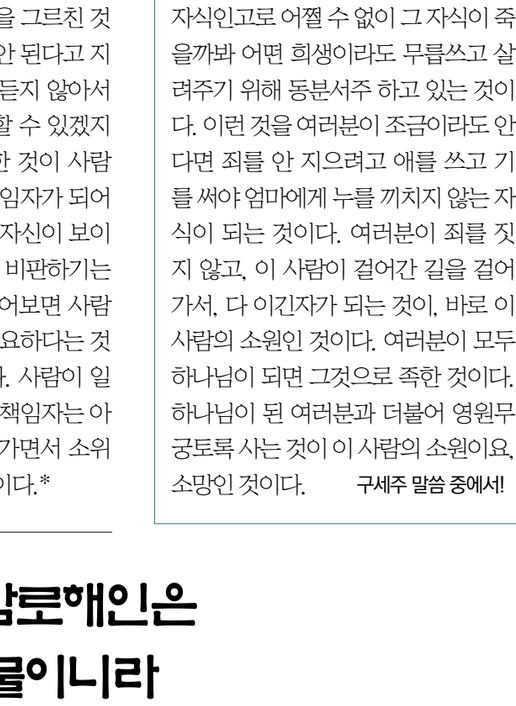
백석(白石)의 주인공이 곧 무궁(武弓)이요 야귀(夜鬼)가 발동해도 저들이(귀신)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목에는 칼을 씌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서 지옥에 던져 버리는 물건으로서 일명(一名) 해인(海印)이라 하느니라.

선(善)한 자에게는 영생(永生)을 얻게 하는 영물(靈物)이요 악(惡)한 자에게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영물(靈物)이니라.

삼물(三物)이 곧 화우로(火雨露) 삼풍 해인인데 삼물(三物)이 일물(一物)로 된 감로해인은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특권을 지닌 영물(靈物)이니라.

單乙謂不死處 단을위불사처
牛吟滿地 우음만지
惡人多生之地 악인다생지지
見不牛而牛聲出處 견불우이우성출처
卽非山非野兩白之間 즉비산비야양백지간
卽弓乙三豊之間豊之間
즉궁을삼풍지간풍지간
海印用事者 해인용사자
天權鄭氏也 천권정씨야
故曰弓乙合德眞人也 고왈궁을합덕진인야
兩白三豊之間 양백삼풍지간
得生之人 득생지인
所謂 黎首之民矣 소위 려수지민의
此意何意名勝末世矣 차의하의명승말세의
眞人居住之地也 진인거주지지야
故曰十勝也 고왈십승야
世人心覺知哉 세인심각지재
柿謀者生衆謀者死矣 시모자생중모자사의
世末聖聖君木人 세말성성군목인
何木上句謀見字 하목상구모견자
欲知生命處 욕지생명처
心覺 金鳩木兎辺 심각 금구목토변
木木村人禁人棄之地

목목촌인금인기지지
獨居可也 독거가야
朴固鄕處處瑞色也
박고향처처서색야
是亦十勝地矣
시역십승지의


천도복숭아 형상의 이슬 위에 실제 존재하는 금비둘기를 합성하여 정도령과 이슬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단을(單乙)은 진인 정도령으로서 그분이 계신 곳은 죽음이 없는 곳으로서 소 울음소리(정도령을 엄마로 알고 부르는 소리이며 정도령이 엄마로서 가르치는 영생의 진리말씀)가 가득한 곳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잘 닦으면 악인이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라.

소는 보이지 않으나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양백지간(兩白之間) 십승이요 곧 궁을(弓乙) 십승(十勝)은 삼풍지간(三豊之間)의 해인(海印)을 마음대로 용사(用事)하는 분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정도령이니라. 그러므로 궁을(弓乙)이 합덕(合德)한 진인(眞人)이라 하느니라.

양백삼풍지간(兩白三豊之間)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소위 검은 머리 백성에서 나오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세의 명승지(名勝地)여! 진인(정도령)이 거주하는 곳을 일러서 십승(十勝)이라고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여! 마음에 깊이 새겨 깨닫고 알아야 하리라. 감(람)나무를 꾀하는 자는 살고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 세상일을 도모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세의 성군(聖君)은 목인(木人)인데 어떤 나무인가는 위의 구절의 꾀하는 바의 글자를 보아야 하리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알고자 한다면 금비둘기(금구金鳩=6도81궁 정도령)는 목토(木兎=5도72궁 정도령)의 가장자리에 있으나 목토(木兎=5도72궁 정도령)가 거듭나서 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리라.

양목(兩木)이 사는 마을에는 세상 잡인을 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버렸던 곳이니라. 결혼하지 않고 또 가족과 떨어져 하나님만 모시고 홀로 사는 곳이니라. 목인이 사는 마을은 곳곳에 상서로운 빛이 감도는 곳이니 이 역시 십승지(十勝地)로다.*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영생의 확신이란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 더욱이 사람이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인데 아무리 부처가 되었다고 영생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처가 왔지만 하나같이 다 죽었지 않았나. 또한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욕심 아닌가.

오래 살려는 마음은 욕심 중의 욕심이 아닙니까? 부처라면 나를 버린 존재인데 어떻게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본성이다. 생명체는 영생을 그 본성으로 한단 말이지.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본성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부산이나 뉴욕에 간다고 치자. 만일 조종사가 죽음을 본성으로 한다면 그는 비행기를 몰다가 언제든지 아무데서나 죽으려고 자살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만일 그렇다면 승객들 또한 불안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그 조종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암묵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또라이가 아니라면 말이야. 그게 바로 생명체는 삶을 본성으로 한다는 말이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담된다고 얼른 죽겠다고 하는데 그건 양심에 따른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아. 옛날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 영감님한테 어떤 짓궂은 젊은이가 쑥을 비벼서 갖다드리면서 이거 드시면 바로 죽는 독약이라고 하니까 호로자식이라고 하면서 담뱃대로 막 때리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속마음은 죽고 싶지 않은 거다. 죽겠다고 말하지만 진짜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나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다. 안 죽으려고 바동거리는 것이다. 그걸 보면 죽고 싶지 않는 마음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고생하면서 사는데 백 년을 넘어 천 년 만 년, 아니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영생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영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개는 개소리를 하고 소는 소의 소리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 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